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4. 29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친환경연구과장	고순보	☎ 760-7350
		업무담당자	이정민	☎ 760-736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‘섬쑥부쟁이’ 농약 등록 확대…안전 생산 기반 강화

- 선제적 제도 개선으로 잔류성 시험 면제 근거 마련…등록 기간 단축 -
- 신속한 농약 등록으로 5종 18개 → 13종 78개 품목 확대 -

-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‘섬쑥부쟁이’에 적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대폭 확대해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.
- 섬쑥부쟁이는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잎채소로, 1980년대 후반 ‘취나물’로 알려지며 재배가 시작됐다. 현재 재배 면적은 약 110ha에 이른다.
- 그러나 섬쑥부쟁이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농가에서는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(PLS)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돼 왔으며, 출하 전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.
-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신속한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을 통해 등록 농약을 확대했다.
- 먼저,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취나물 잔류성 시험 결과를 섬쑥부쟁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‘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’을 개정했다. 이를 통해 잔류성 시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농약 등록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.
- * 농약직권등록시험 절차: 약효·약해 시험 → 작물 잔류성 시험
- 이어 잔류성 시험 면제가 가능한 농약 41개 품목에 대해 약해 시험을 추진하고, 섬쑥부쟁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

범위를 확대했다.

- 그 결과 기존 시들음병 등 5종 병해충에 18개 품목에 불과했던 등록 농약은 뿌리혹선충·목화진딧물 등을 포함한 13종 병해충 78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.
- 이번 농약 등록 확대는 제주 지역 특산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“이번 농약 등록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약제 선택 폭이 넓어지고, PLS 위반 우려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시험연구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